

11일 Market Index			
↓ 코스피	2659.84	↑ 코스닥	875.93
	(-20.51)		(+2.75)
↑ 금리 (연)	3.275	↓ 환율 (원/달러)	1310.30
	(+0.004)		(-9.50)

의료현장, 군의관 투입
교수 집단행동
이번주 분수령
02



잘 안들리는 노인에게 “이해했다” 강요... 불완전 판매, 대거 적발

홍콩 ELS 기본배상 20~40%... 최대 100% 배상가능

금융당국, 주요 판매사 조사
투자자 컴퓨터 원격제어 등
불확실성 시기 과도한 판매
투자위험 누락·왜곡 사례도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유례없는 손실을 낸 홍콩 H지수 파생결합증권(ELS) 상품의 불완전 판매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청력이 약한 87세 노인에게도 “이해했다”는 답을 강요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기본배상비율은 최대 40%로 설정하고 판매사별로 최대 10%포인트, 투자자별로는 최대 45%포인트의 가산비율을 더해 손실을 배상할 방침이다. 이론적으로는 전액(100%) 배상도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지난 1월8일부터 11개의 H지수 ELS 주요 판매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 <관련기사 3면>

조사 결과, 판매사들은 글로벌 주가지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임에도 과도한 영업 목표, 프로모션 등 공격적 영업을 지속해 H

지수 ELS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A은행 직원은 87세 투자자가 청력이 약해 “들리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겠다”고 이야기함에도 투자상품을 “이해했다”고 답할 것을 요구하고, 중도해지수수료 개념에 대해 “가능하면 해지하시면 안된다는 의미”라며 왜곡 설명했다.

A증권사 판매직원은 71세 고

령투자자에게 ELS를 판매하면서 투자자 배우자와 통화해 부부의 컴퓨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으로 접속하는 방식으로 고객대신 가입절차를 진행했다.

지난해 말 기준 H지수 ELS 전체 판매잔액 총 18조8000억원 가운데 개인 투자자는 전체 92%를 차지한다. 그중 65세 이상 고령투자자는 21.5%를 차지하고 있다.

판매 시스템도 부적절하게 설계·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성향분석 시 거래목적, 위험에 대한 태도, 상품에 대한 이해도 등 6개 항목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함에도,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점수가 배정되지 않도록 하는 등 부실하게 설계 운영됐다.

‘손실 감내수준 20% 미만’ ‘단기투자희망’ 등 H지수 ELS에 부적절한 투자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유리하게 설계해 판매를 오히려 확대했다. 투자성 상품 판매시 설명해야 하는 손실위험 시나리오, 위험등급 유의사항 등 투자위험을 누락하거나 왜곡된 사례도 많았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기본배

상비율을 최대 40%로 설정하고 판매사별로 최대 10%포인트, 투자자별로는 최대 45%포인트 가산해 손실 배상에 나선다. 이론상으로는 손실 전액(100%) 배상도 가능하다.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배율은 20~40%로 정했다. 불완전 판매를 유발·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하되, 그 정도에 따라 은행은 10%포인트, 증권사는 5%포인트를 가중한다.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자료 유지·관리 부실 등 각 투자자에 대한 판매사의 절차상 미흡사항을 고려해 투자자별로 최대 45%포인트 배상비율을 가산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시 참작할 방침”이라며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함께 ELS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생존을 넘어 성공으로 수축경제 시대, 재테크

메트로신문이 오는 3월 20일(수)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군1을 개최합니다.

저성장, 고금리 속에 국내외 경제는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잃어가는 수축사회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테크 전략도 다시 짜야 합니다.

메트로신문은 ‘생존을 넘어 성공으로, 수축경제 시대 재테크’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국내외 경제와 주식시장을 전망하고, 고령화시대 재테크와 부동산 투자 전략을 모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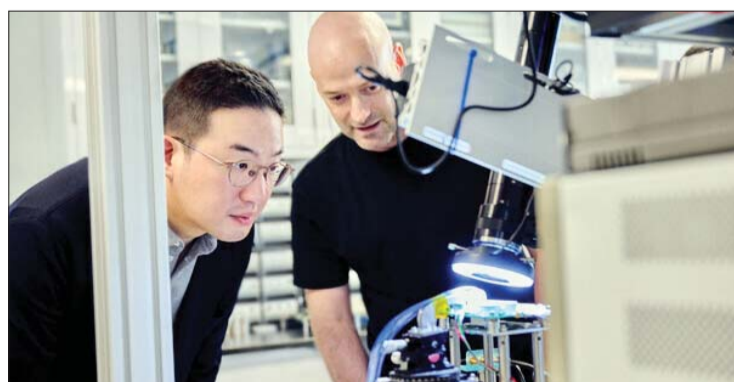
- 행사명 : 2024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군1)
- 주 제 : 생존을 넘어 성공으로, 수축경제 시대 재테크
- 일 시 : 3월 20일(수) 오후 2시~5시10분 (VIP 티타임 오후 1시30분~2시)
- 장 소 :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 문 의 : 100세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구광모, A·B·C 신사업 가속화... AI로 알츠하이머 난제 푼다

(인공지능·바이오·청정기술)

LG, 美잭슨랩과 공동연구개발
알츠하이머 유전 특성 연구자료
엑사원에 학습시켜 치료 극대화



구광모 LG 대표가 지난해 8월 22일 캐나다 토론토 자나두 연구소를 방문해 연구소 설비를 들여다보고 있다. /LG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A·B·C’ 사업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A·B·C 사업은 그가 제시한 인공지능(AI), 바이오(Bio), 청정기술(Cleantech) 세 가지 미래 핵심 성장 가치다. 지난해 7월 폴란드, 8월 미국·캐나다, 9월 인도네시아까지 해외 ABC 사업 거점을 방문해 직접 현황을 살폈다. 이번에는 A·B·C 사업 중 AI와 바이오가 만났다.

LG는 11일 세계적인 유전체(Genome) 비영리 연구기관인 미국 잭슨랩(JAX)과 알츠하이

머와 암의 원인 규명과 정복을 위한 AI 공동 연구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LG AI연구원과 잭슨랩은 지난해 12월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맺고 최근 본계약까지 체결했

다. 양사는 알츠하이머와 암의 발병 원인 및 진행 과정을 분석하고 치료제 효과까지 예측하는 AI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LG와 잭슨랩의 협업으로 개발할 AI 모델은 개인 맞춤 치료 연

구의 초석이자 유전자 및 인간 노화 지연의 열쇠가 될 예정이다.

알츠하이머 등 퇴행성 뇌질환은 유전자 및 인간 노화와 밀접한 연관이 커 연구·개발 성과의 응용 및 활용이 무궁무진 하다. LG는 잭슨랩이 보유한 알츠하이머의 유전적 특성과 생애주기별 연구 자료를 자사 개발 생성형 AI ‘엑사원(EXAONE)’에 학습시켜 질병 원인을 분석하고 치료 효율 극대화를 꾀한다.

암 진단·치료 AI 모델은 개인별 유전체 정보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항암 치료 선택지를 제안하는 새로운 대화형 생성 AI 모델을 목표로 개발한다. 병리 이미지로 신속한 진단을 내리고 치료

효과를 예측하며 신약의 후보물질 발굴부터 전임상 시험과 임상 시험에 이르기까지 개발 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성공률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LG는 이번 잭슨랩과의 협업을 통해 유전자 변이에 따른 개인별 맞춤 치료가 가능한 정밀의료 시대를 여는 역할을 기대 중이다.

구 회장은 A·B·C 사업에서도 특히 AI 기술력의 전 계열사 접목에 힘쓰고 있다. 그룹차원에서 AI 분야에 2026년까지 3조 6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미 LG AI연구원은 ▲LG 디스플레이(차세대 OLED 발광 재료 예측) ▲LG이노텍(특허 빅

데이터 분석, 제품 검사 공정) ▲LG화학(신약·신소재 발굴 개발) ▲LG에너지솔루션(배터리 전해질 화합물 개발) ▲LG유플러스(고객 리뷰 분석) ▲LG생활건강(제품 디자인 및 색조원료 배합) 등 각 계열사들의 업무 효율 향상과 상품 개발을 위한 다양한 AI 모델을 만들고 현장에 적용했다. LG AI연구원의 연구개발 성과도 크다.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국제 컨퍼런스에서 3개 상을 수상하고, 컨퍼런스가 주관하는 주식 종목 수익률 예측 대회에서 163개국 중 상위 5위에 안착했다. 이번 잭슨랩과의 A·B·C 사업 중 또 하나인 바이오 사업과 AI 사업의 유기적 결합이다. LG는 이번 협업을 통해 개인 맞춤형 의료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다.

/이청하 기자 mlee236@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윤 대통령 “춘천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7300개 일자리 창출” /사진 뉴시스
- ▲ 이재명, 임종석에 공동선대위원장 제안... “민주당 승리 위한 길 고민해야”

- ▲ 개성공단재단, 다음주쯤 해산... “재산권 침해, 필요한 조치”
- ▲ 윤 대통령 지지율 0.9%p 하락한 40.2% ... 3주째 40%대 유지



- ▲ 조국혁신당, 이종섭 출국 책임에尹 고발 /사진 뉴시스
- ▲ 한 총리, ‘전원 전문의’ 뇌혈관 전문병원 방문... “정부가 구현할 모델”